

# 1900억 규모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본격화

### 유두석 군수·이개호 국회의원 기자회견서 천명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성공 추진 최선의 노력

장성군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00억원 규모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본격화한다고 천명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 관계자, 군의회의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장성군은 회견문을 통해 "장성군민의 14년 염원으로 지난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 43억 7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올해 질병관리청이 예산 전액을 불용 조치해 절박한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군민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으며, 군수와 군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은 식발까지 감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장성군은 "결국, 5만 장성군민과 340만 광주·전남 시민의 눈물겨운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2년 정부 예산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부지매입비

등 28억원이 최종 반영되는 극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장성에 센터가 설립된다는 확실한 근거까지 예산안 부대의견에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초 490억원 사업이 4배 확대된 1900억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해 주신 장성군민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및 도의회, 이용섭 광주시장 및 시의회, 의사회 등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이개호·신정훈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및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한 축을 맡는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질병관리청과 함께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 공식화 및 조기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니 장성군민께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 2022년 정부예산 28억원 확보 국립심뇌혈관센터(1,900억원 규모) 장성 이개호 국회의원·유두석 장성군수 공동 기

장성군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00억원 규모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 관계자, 군의회의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한 축을 맡는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흥 고씨 고택 무계원 전남도 기념물 지정



장흥 평화리의 무계고택이 '장흥 무계원' (사진)으로 전남도 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됐다.

장흥군은 장흥읍 평화리의 무계고택(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61호)이 주변 연못과 배롱나무 군락 및 수목 등과 함께 '장흥 무계원'으로 전남도 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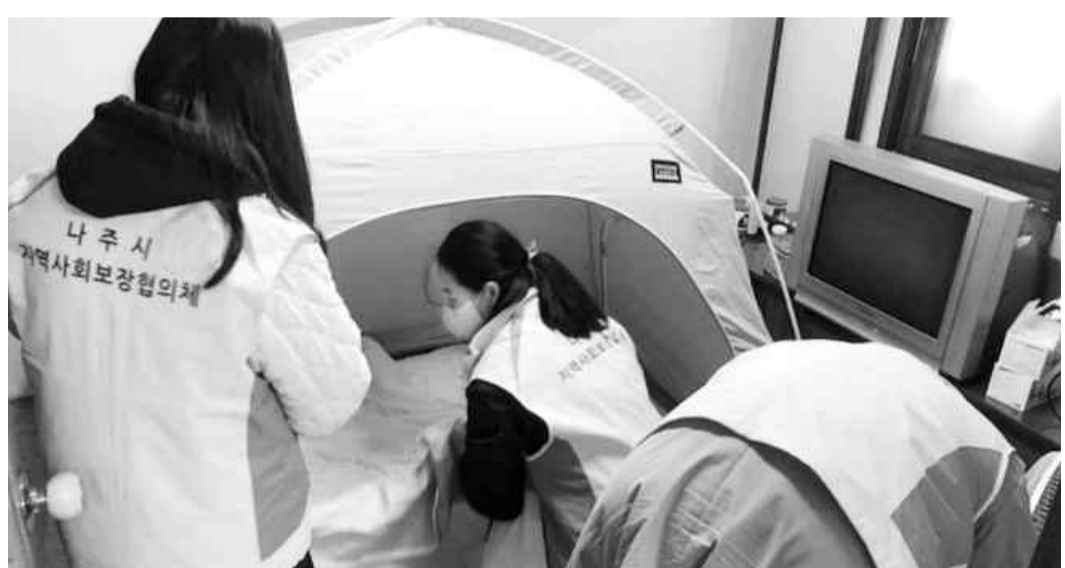
지난해부터 무계고택 및 주변 원림의 자료 조사를 통해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 초 승격 지정을 신청해 기념물로 지정됐다.

무계고택은 장흥 고 씨의 고택과 정담, 정원 숲 일원의 경승지이다. 1852년 일자형 겹집으로 중수하고 1899년 상량해 흔하지 않은 19세기 중후반의 민가이며 목조 건물로 조성됐다. 가구 구조가 탄실하고 치목의 수법이 뛰어난 건축학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

1850년 정담 고연주가 무계고택 주변에 연못을 조성해 정담이라 명명했으며, 연못 내부의 섬을 만들어 나무를 식재했다고 한다. 고택 주변에 팽나무, 느티나무, 대나무 숲 등 우리나라 민간 고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무계원의 종합 정비와 활용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며 무계원 지정에 관해 경승지 탐방, 고택 체험, 전통문화 강좌, 문화유산 해설사 연계 등 방문객의 편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나주시, 취약계층 110가구에 난방텐트 보급

#### 외풍 차단·난방비 절감 효과

#### 읍면동 지사협 설치 보급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 나세요."

나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난방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 외풍차단 효과가 있는 '난방텐트'를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나주시는 읍·면·동과 사례관리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 취약계층 110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난방텐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난방텐트는 집 내부에 설치하는 텐트형 난방용품으로 겨울철 흔히 사용하는 전기장판에 비해 보온효과가 뛰어나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기장판은 방바닥 온도 급상승에 따른 위, 아래 온도차로 호흡기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난방텐트는 외풍을 차단하면서 내부 온도를 4-8도 정도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00세대 보급에 이어 올해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난방텐트를 직접 설치, 사용법을 안내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난방텐트 보급은 뛰어난 보온 효과와 난방비 절감 등으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이라며 "열악한 환경 속 겨울 추위에 고생하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담양군, 관방제림 제방단면 시굴조사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일환

#### 체계적 보존·관리, 가치 재조명

담양군이 문화재청과 천연기념물 제366호인 담양 관방제림의 제방단면 시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이번 조사는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수정비의 일환으로, 관방제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굴조사 전 관방제림 내 보호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사 구간을 설정했으며, 시굴조사 중에도 문화재의 현상 보존에 주력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과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방 축조 이전과 자연제방 존재 유무, 형상을 파악하는 등 제방 조성과 보수 현황, 축조방법을 확인해 기록할 방침이다.

군은 시굴조사에 따른 관광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로 운영과 함께 현장관리인을 배치하고 완료 후에는 제방의 안전성 검토와 하천설계 기준에 부합한 복구계획을 수립해 제방을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한편 관방제림은 담양읍을 갈라주는 담양천 북쪽제방에 조성된 인공제방과 인공림으로, 조선시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축조됐으며, 영산강 상류의 물길을 다스리는 선조의 지혜가 담긴 역사와 문화적 자료로서 199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공회전·운행차 배출가스

#### 화순군, 내년 3월까지 단속

화순군이 오는 2022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극대화를 위한 자동차 공회전·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의 운행차 배출가스, 화순읍 시외버스터미널·향정리 공용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2분 이상)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점검·정비 등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 후 재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친환경 운전 실천 등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